

2015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내 용

1. 개요
2. 국가별 국가혁신지수
3.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추이
4. 요약 및 정리

작 성

안지혜 연구원 | jihye@kistep.re.kr | 02-589-5240

엄지영 연구원 | eomji@kistep.re.kr | 02-589-2248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1. 개요

●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11년부터 「국가혁신지수보고(國家創新指數報告)」를 매년 발표

-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에서 혁신형 국가가 건설되어 가는 과정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06년부터 국가혁신지수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 중국 국가혁신지수 보고서는 '11년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국가혁신지수보고(國家創新指數報告) 2015(16.8월)」는 여섯 번째 보고서임

※ 중국 과학기술부의 「국가혁신조사제도 구축사업 방안」에 따르면 「국가혁신지수보고」는 국가 혁신조사제도의 중요한 결과물로 국가 차원에서 주로 외국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혁신역량평가보고서

- 「국가혁신지수보고」의 분석결과는 「국가 제12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에서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

* 중국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인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의 전략 등을 반영한 과학기술분야의 5개년('11년~'15년) 계획에 해당

** 명확한 기능과 합리적 구조, 선순환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국가혁신체계를 수립하고 국가 종합 혁신 역량의 세계 순위를 현재 21위에서 '15년까지 18위로 도약

● 「국가혁신지수보고」는 다른 국가들에서 발간하는 혁신지수보고서와 같이 중국의 혁신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중국 내외의 국가경쟁력 및 혁신평가 관련 이론과 방법론을 참조하여 지표체계를 개발
- 중국의 국가혁신역량 특징과 국제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공

※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방식을 기준으로 국가의 발전 유형을 자원 수출형, 경제의탁형, 기술혁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세 번째 방식인 기술혁신형 발전을 중국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혁신형 국가 반열 진입」을 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중국 국가혁신지수는 5개 부문(1급 지표) 30개 세부지표(2급 지표)로 전 세계 40개 국가의 국가혁신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

- 혁신자원, 지식창출, 기업혁신, 혁신성과 및 혁신환경 등 5개 측면에서 국가혁신지수 지표체계 구성
- 분석대상 국가는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97%를 차지하는 40개국으로 설정
- 혁신지수는 '13년~'14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14년도 지수를 산출
- 국가혁신지수의 산출은 벤치마킹 분석법^{*} 중 Min-max방식을 활용

* 기준치를 설정한 다음 해당 기준치를 표준으로 모든 평가대상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격차를 분석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

● 이번 호에서는 중국 「국가혁신지수보고(國家創新指數報告) 2015」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중국 국가혁신지수 지표체계]

- 중국 국가혁신지수는 과학기술 지식의 생성과 확산, 상용화의 전체 과정을 5개 분야의 30개 세부지표로 모형화
- 복합지수 산출은 유럽연합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보고서의 방법론을 차용
 - 각 세부지표별 표준화는 Min-max법으로 정규화, 지표별 가중치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는 가중평균 방식 활용

부문	지표
1. 혁신자원	1. 연구개발(R&D)투자의 집중도 2. 연구개발인력의 집중도 3. 과학기술인재의 육성 규모 4. 정보화의 발전 수준 5. 연구개발투자의 세계 투자비중
2. 지식창출	6. 학술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백만 달러당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수 7. 과학연구인원 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 8.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식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9.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 10. 연구원 만 명당 특허 등록 건수
3. 기업혁신	11. 삼극특허 건수의 세계 비중 12. 산업 부가가치 대비 기업 연구개발투자 비중 13. 기업 연구인력 만 명당 PCT특허 수 14. 종합기술의 자립도 15. 총 연구개발 인력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비중
4. 혁신성과	16. 노동생산성 17. 에너지소비 단위당 GDP 산출 18. 유효 특허수량 19. 제조업수출 대비 첨단기술 산업 수출 비중 20. 지식집약형 산업 부가가치의 세계 비중
5. 혁신환경	21.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 22. 정부규제의 기업 부담도 23. 거시경제의 안전성 24. 연구 및 교육 등 관련 전문서비스 현황 25. 반독점정책의 효과 26. 직원소득과 효율성의 상관도 27. 기업 혁신사업의 벤처투자 자금 유치 난이도 28. 산업클러스터 발전현황 29. 산학연 협력 수준 30. 정부구매의 기술혁신 영향

2. 국가별 국가혁신지수

● 우리나라는 3개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어 종합 4위를 나타냄

- 혁신자원 부문 2위, 지식창출 부문 1위, 기업혁신 부문 3위, 혁신환경 22위로 전년대와 동일하였으며, 혁신성과 부문의 순위 감소에도 불구하고 5개 부문 종합순위 역시 전년대와 동일한 4위

* (우리나라의 혁신성과 부문 순위) 2013년 13위→2014년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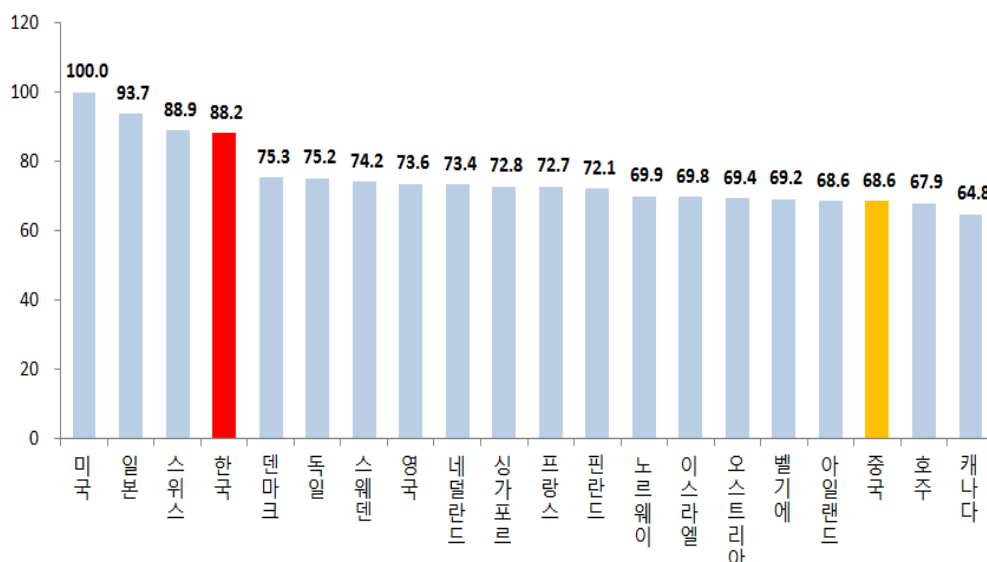
● 중국 국가혁신지수에서 혁신활동이 가장 우수한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남

- 미국은 전년대와 동일하게 비교대상 40개국 중 1위이며, 부문별로는 혁신자원과 혁신성과 부문에서 1위, 기업혁신 부문에서 2위로 최상위권
- 다음으로 일본과 스위스, 한국 순으로 상위 4개 국가는 전년대와 동일한 순위 유지

[표 1] 주요국가의 국가혁신지수 순위 변화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14년	4	1	2	6	11	8	18
'13년	4	1	2	9	13	11	19
순위변화	-	-	-	↑3	↑2	↑3	↑1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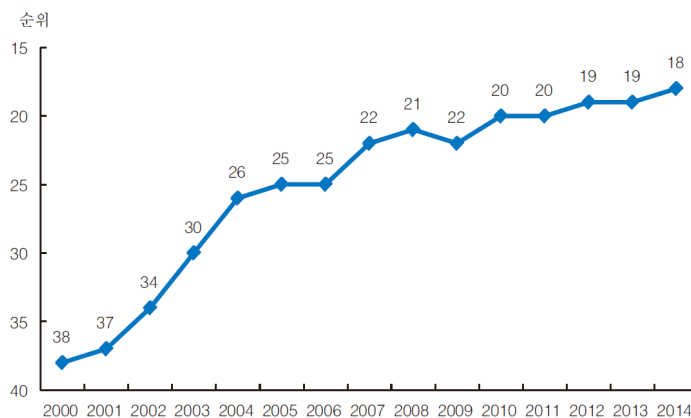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그림 1] '15년도(평가대상 '14년) 중국 국가혁신지수의 상위 20개국 국가별 현황

- 싱가포르의 혁신자원(15위→14위, ↑1)과 지식창출(17위→15위, ↑2)의 전년 대비 순위 상승, 혁신환경(1위, -)과 혁신성과(5위, -)의 상위권 수준 유지 등으로 종합 10위권 진입(12위→10위)
 - 이스라엘은 지식창출(13위→35위, ↓22)과 혁신성과(18위→21위, ↓3) 부문 순위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강도의 혁신자원 투입(4위, -)과 강력한 기업혁신역량(4위, -)으로 15위권(14위)
 - 스위스는 혁신성과(3위→2위, ↑1)의 상승 및 전 부문 상위권 유지에 힘입어 종합 3위 유지
 - 덴마크(5위), 스웨덴(7위), 핀란드(12위) 등 북유럽국가들이 상위 15위권 다수 포진
- 40개국 전체의 전년대비 순위변화는 대체로 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가장 큰 순위변화는 이스라엘의 큰 순위 하락(5위→14위, ↓9)와 독일(↑3, 6위), 영국(↑3, 8위)의 3단계 순위 상승이며 이외의 국가는 ±1~2위의 변동으로 변화폭이 작음

3.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추이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는 '00년 38위에서 '14년 18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18위), 시계열적으로 볼 때에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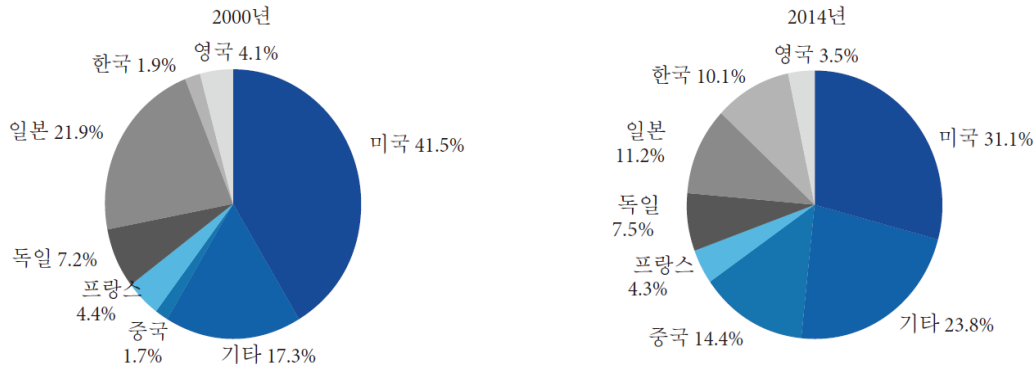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그림 2〕 중국 국가혁신지수의 중국 순위 변화 추이(2000~2014)

- 중국(2014)의 '14년 R&D투자 규모는 2,118.6억 달러로 전년도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힘
 - * 일본의 R&D 투자는 최근 30여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세계 2위를 유지했으나, '13년도부터 중국(2013)이 일본(2013)을 제치고 2위를 차지
 - 미국(2013)의 경우 R&D투자의 세계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2014)의 2.2배 수준*
 - * 우리나라의 '14년도의 R&D 투자 605.3억 달러에 비해서는 7.6배 수준

- BRICS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R&D투자 세계 점유율은 '00년 3.8%에서 '14년 19.3% 수준으로 성장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그림 3] 주요국 R&D 투자의 세계 점유율 변화(2000~2014)

● 중국의 R&D 인력*은 '14년 371만 1천명으로 전세계의 31.3%를 차지하여 8년 연속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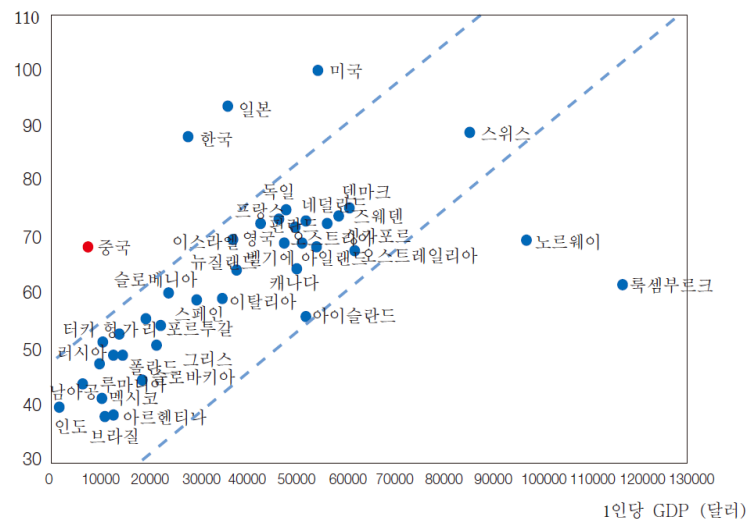
- * 연구원과 연구보조인력을 모두 포함한 인력이며, 자신의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실질연구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수치
- 인력은 주로 아시아와 유럽지역 집중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중국(10.5%)과 한국(8.5%) 등 신흥 경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을 월등히 추월
- * 전 세계 평균 증가율 : 3.6%
-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 과학기술 인적자원 대국이나(80만명 이상), 최근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각 7.6%, 7.0%)

● 중국과 혁신형 국가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8위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국가와의 지수 격차 또한 감소
-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는 68.6점으로 전년보다 0.2점이 상승하였으며 18위와의 격차는 0.6점
-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국가 제12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에서 설정한 18위 달성은 물론, 10개의 발전 목표 중 9개를 달성하였음

● 중국은 동일한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의 혁신역량 수준을 추월

- 중국의 '14년 인구 1인당 GDP는 7,590달러 정도로 40개국 중에서 인도와 남아공보다 높은 수준
- 그러나 중국의 혁신지수는 인구 1인당 GDP 5만 달러인 유럽국가들에 근접한 수준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동일한 개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그림 4] 인구 1인당 GDP와 중국 국가혁신지수(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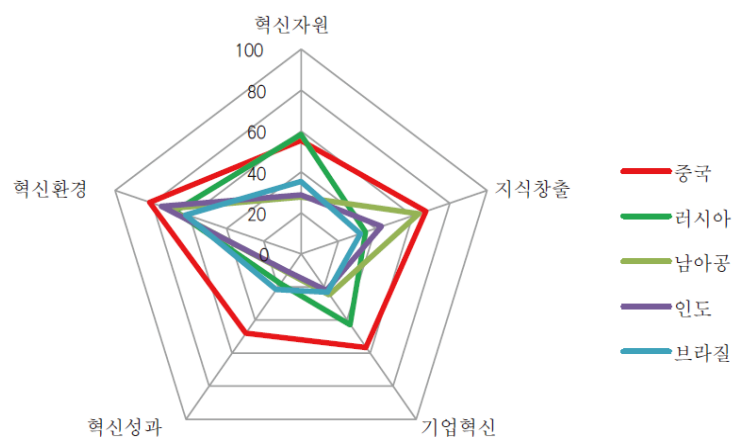
● 중국은 브릭스(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나타냄

- 브릭스 국가 중 중국(18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30위권 밖*으로 중국은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나타냄

* 남아공은 36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러시아와 인도는 전년대비 1단계씩 상승해 각각 32위와 38위, 브라질은 전년대비 1위 하락해 39위에 머무름

- 중국은 지식창출, 기업혁신, 혁신성과, 혁신환경 등 4개 부문에서 브릭스 국가 모두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냈으며 혁신자원 부문에서는 러시아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특히 지식창출 점수가 전년에는 남아공에 뒤쳐졌으나, 올해는 앞서기 시작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그림 5] BRICS 국가의 부문별(1급 지표) 혁신지수 비교(2014)

〔표 2〕 중국 국가혁신지수의 5개 부문 순위 추이 변화(2005~2014)

연도	혁신자원		지식창출		기업혁신		혁신성과		혁신환경		혁신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2005	147	31	164	37	226	17	140	29	100	27	25
2006	160	32	174	34	261	17	158	28	98	28	25
2007	197	33	188	34	311	14	181	28	102	27	22
2008	218	33	193	33	356	12	216	25	108	23	21
2009	255	31	275	32	528	18	241	24	115	16	22
2010	281	30	295	29	618	15	276	18	112	18	20
2011	308	30	355	24	674	15	319	14	109	19	20
2012	345	30	407	18	725	15	356	14	112	14	19
2013	378	29	416	19	788	13	385	11	112	13	19
2014	396	27(↑4)	470	12(↑25)	825	12(↑5)	409	11(↑18)	111	19(↑8)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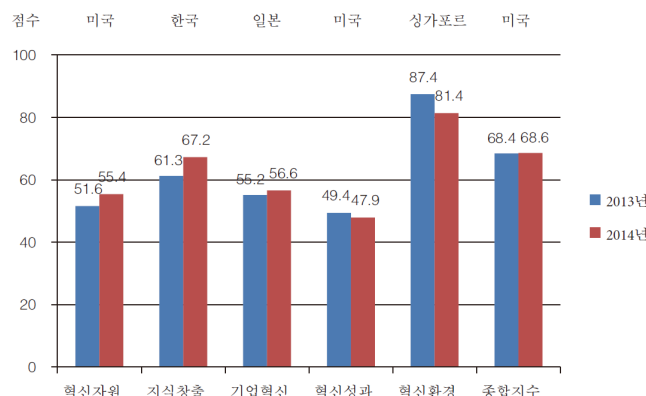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 중국의 5대 부문(1급 지표)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

- 혁신자원 부문은 5개 부문 중 상승세가 가장 낮으며('05년 31위→'14년 27위, ↑4), 이는 이 지표가 인구규모(인구 수)와 경제성장단계(경제총규모)와 관련이 있어 단기간에 큰 변화가 힘들다는 성격에 기인
- 지식창출 부문은 '05년 37위에서 '14년 12위로 크게 상승(25단계 상승)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논문 및 특허 등의 과학 연구 지식창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반증
- 혁신성과 부문도 '05년 29위에서 '14년 11위로 크게 상승(18단계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성과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지식집약형 산업의 빠른 발전에 기인
- 기업혁신 부문은 '14년 12위로 '05년 대비 5계단 상승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11차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중국 기업의 혁신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
- 혁신환경 부문은 27위에서 19위로 상승하는 등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혁신역량 측면에서 혁신 강국에 비해 발전의 여지가 큰 상황

-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혁신 강국에 비해서 아직 혁신 인프라 취약, 혁신자원 축적 부족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종합 혁신지수가 낮음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그림 6〕 5대 부문별 중국 국가혁신지수(1위 국가 대비 지수값, 2014)

4. 요약 및 정리

- **우리나라는 3개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어 종합 4위를 나타냄**
 - 혁신자원 부문 2위, 지식창출 부문 1위, 기업혁신 부문 3위, 혁신환경 22위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혁신성과 부문의 순위 감소에도 불구하고 5개 부문 종합순위 역시 전년과 동일한 4위
- **중국 국가혁신지수에서 중국은 18위로 평가되었으며 미국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평가**
 - 미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비교대상 40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8위
 - 10위권 내에서 볼 때 큰 변화는 덴마크, 독일,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가 전년대비 각각 1~3위 상승하여 10위권, 반대로 이스라엘은 전년대비 9위 하락한 14위를 차지
 - 40개국 전체의 전년대비 순위변화는 대체로 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분야에서 ‘과학기술 대국’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평**
 - '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단계 정도 상승(18위)을 나타냈으며, 시계열적으로 볼 때에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 : '01년 37위 → '04년 26위 → '07년 22위 → '10년 20위 → '13년 19위 → '14년 18위
 - 중국의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기술경쟁력과 국제적 영향력 또한 향상되어 ‘대국’에서 ‘강국’으로 변모했다고 평가
-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 발전 기여도는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며 중국과 혁신형 국가와의 혁신역량 격차도 지속적으로 축소**
 - 중국은 개혁개방이 이후 '10년 국내총생산 규모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앞서며 세계 2위를 유지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8위, 상위 국가와의 지수 격차 또한 감소
 -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는 68.6점으로 전년보다 0.2점이 상승하였으며 18위와의 격차는 0.6점
 -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국가 제12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에서 설정한 18위 달성은 물론, 10개의 발전 목표 중 9개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혁신역량의 측면에서 혁신 강국에 비해 발전의 여지가 큰 상황
- **중국은 동일한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의 혁신역량 수준을 추월하고 있으며 브릭스(BRICS)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나타냄**
 - 중국의 혁신지수는 인구 1인당 GDP 5만 달러인 유럽국가들에 근접한 수준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동일한 개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브릭스 국가 중 중국(18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30위권 밖*으로 중국은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나타냄
 - * 브라질: 39위, 인도: 38위, 남아공: 36위, 러시아: 32위

[통계표]

[표 3] 중국 국가혁신지수와 5대 부문별 지수 순위 변화

국가	국가혁신지수 순위		
	2014년	2013년	증감
미국	1	1	-
일본	2	2	-
스위스	3	3	-
한국	4	4	-
덴마크	5	6	↑ 1
독일	6	9	↑ 3
스웨덴	7	7	-
영국	8	11	↑ 3
네덜란드	9	8	↓ 1
싱가포르	10	12	↑ 2
프랑스	11	13	↑ 2
핀란드	12	10	↓ 2
노르웨이	13	15	↑ 2
이스라엘	14	5	↓ 9
오스트리아	15	16	↑ 1
벨기에	16	18	↑ 2
아일랜드	17	14	↓ 3
중국	18	19	↑ 1
호주	19	17	↓ 2
캐나다	20	22	↑ 2
뉴질랜드	21	21	-
룩셈부르크	22	20	↓ 2
슬로베니아	23	23	-
이탈리아	24	25	↑ 1
스페인	25	26	↑ 1
아이슬란드	26	24	↓ 2
체코	27	27	-
포르투갈	28	28	-
헝가리	29	29	-
터키	30	31	↑ 1
그리스	31	30	↓ 1
러시아	32	33	↑ 1
폴란드	33	32	-
루마니아	34	34	-
슬로바키아	35	35	-
남아프리카	36	36	-
멕시코	37	37	-
인도	38	39	↑ 1
브라질	39	38	↓ 1
아르헨티나	40	40	-

국가	혁신자원 부문 순위		
	2014년	2013년	증감
미국	1	1	-
한국	2	2	-
핀란드	3	3	-
이스라엘	4	4	-
덴마크	5	5	-
일본	6	6	-
스웨덴	7	7	-
오스트리아	8	11	↑ 3
독일	9	9	-
스위스	10	10	-
네덜란드	11	13	↑ 2
호주	12	14	↑ 2
노르웨이	13	16	↑ 3
싱가포르	14	15	↑ 1
슬로베니아	15	12	↓ 3
벨기에	16	18	↑ 2
프랑스	17	17	-
영국	18	19	↑ 1
캐나다	19	20	↑ 1
뉴질랜드	20	21	↑ 1
체코	21	22	↑ 1
룩셈부르크	22	26	↑ 4
러시아	23	25	↑ 2
그리스	24	28	↑ 4
스페인	25	24	↓ 1
아이슬란드	26	8	↓ 18
중국	27	29	↑ 2
포르투갈	28	27	↓ 1
이탈리아	29	30	↑ 1
헝가리	30	31	↑ 1
폴란드	31	32	↑ 1
터키	32	33	↑ 1
아일랜드	33	23	↓ 10
슬로바키아	34	34	-
아르헨티나	35	35	-
브라질	36	37	↑ 1
루마니아	37	36	↓ 1
인도	38	38	-
멕시코	39	39	-
남아프리카	40	40	-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표 3〕 중국 국가혁신지수와 5대 부문별 지수 순위 변화(계속)

국가	지식창출 부문 순위		
	2014년	2013년	증감
한국	1	1	-
스위스	2	2	-
일본	3	3	-
뉴질랜드	4	4	-
아일랜드	5	5	-
미국	6	9	↑ 3
영국	7	6	↓ 1
네덜란드	8	8	-
벨기에	9	10	↑ 1
호주	10	7	↓ 3
이탈리아	11	12	↑ 1
중국	12	19	↑ 7
스페인	13	14	↑ 1
헝가리	14	11	↓ 3
싱가포르	15	17	↑ 2
남아프리카	16	15	↓ 1
루마니아	17	20	↑ 3
캐나다	18	21	↑ 3
슬로베니아	19	18	↓ 1
포르투갈	20	23	↑ 3
덴마크	21	22	↑ 1
아이슬란드	22	26	↑ 4
스웨덴	23	24	↑ 1
프랑스	24	27	↑ 3
그리스	25	16	↓ 9
독일	26	30	↑ 4
폴란드	27	25	↓ 2
터키	28	32	↑ 4
오스트리아	29	29	-
핀란드	30	31	↑ 1
체코	31	28	↓ 3
노르웨이	32	33	↑ 1
인도	33	35	↑ 2
슬로바키아	34	34	-
이스라엘	35	13	↓ 22
아르헨티나	36	37	↑ 1
멕시코	37	36	↓ 1
러시아	38	39	↑ 1
브라질	39	38	↓ 1
룩셈부르크	40	40	-

국가	기업혁신 부문 순위		
	2014년	2013년	증감
일본	1	1	-
미국	2	2	-
한국	3	3	-
이스라엘	4	4	-
독일	5	6	↑ 1
프랑스	6	7	↑ 1
스웨덴	7	5	↓ 2
핀란드	8	8	-
스위스	9	9	-
오스트리아	10	10	-
덴마크	11	11	-
중국	12	13	↑ 1
슬로베니아	13	12	↓ 1
룩셈부르크	14	14	-
네덜란드	15	15	-
벨기에	16	16	-
터키	17	18	↑ 1
이탈리아	18	17	↓ 1
영국	19	19	-
러시아	20	20	-
아일랜드	21	23	↑ 2
캐나다	22	21	↓ 1
체코	23	24	↑ 1
스페인	24	22	↓ 2
노르웨이	25	25	-
루마니아	26	28	↑ 2
포르투갈	27	26	↓ 1
호주	28	29	↑ 1
헝가리	29	31	↑ 2
폴란드	30	32	↑ 2
그리스	31	30	↓ 1
아이슬란드	32	27	↓ 5
싱가포르	33	33	-
뉴질랜드	34	34	-
멕시코	35	35	-
슬로바키아	36	39	↑ 3
남아프리카	37	37	-
브라질	38	38	-
인도	39	36	↓ 3
아르헨티나	40	40	-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표 3] 중국 국가혁신지수와 5대 부문별 지수 순위 변화(계속)

국가	혁신성과 부문 순위		
	2014년	2013년	증감
미국	1	1	-
스위스	2	3	↑ 1
일본	3	2	↓ 1
노르웨이	4	4	-
싱가포르	5	5	-
아일랜드	6	7	↑ 1
영국	7	10	↑ 3
프랑스	8	8	-
덴마크	9	9	-
독일	10	14	↑ 4
중국	11	11	-
호주	12	12	-
룩셈부르크	13	6	↓ 7
스웨덴	14	16	↑ 2
한국	15	13	↓ 2
네덜란드	16	15	↓ 1
오스트리아	17	17	-
이탈리아	18	19	↑ 1
벨기에	19	20	↑ 1
캐나다	20	21	↑ 1
이스라엘	21	18	↓ 3
스페인	22	23	↑ 1
핀란드	23	22	↓ 1
뉴질랜드	24	24	-
아이슬란드	25	26	↑ 1
그리스	26	25	↓ 1
멕시코	27	28	↑ 1
포르투갈	28	31	↑ 3
헝가리	29	27	↓ 2
체코	30	30	-
브라질	31	29	↓ 2
슬로베니아	32	32	-
슬로바키아	33	33	-
아르헨티나	34	34	-
폴란드	35	36	↑ 1
러시아	36	35	↓ 1
터키	37	37	-
루마니아	38	38	-
남아프리카	39	40	↑ 1
인도	40	39	↓ 1

국가	혁신환경 부문 순위		
	2014년	2013년	증감
싱가포르	1	1	-
스위스	2	2	-
룩셈부르크	3	4	↑ 1
미국	4	7	↑ 3
노르웨이	5	6	↑ 1
영국	6	8	↑ 2
네덜란드	7	9	↑ 2
핀란드	8	3	↓ 5
독일	9	5	↓ 4
뉴질랜드	10	10	-
일본	11	14	↑ 3
스웨덴	12	11	↓ 1
캐나다	13	12	↓ 1
아일랜드	14	16	↑ 2
이스라엘	15	21	↑ 6
벨기에	16	17	↑ 1
덴마크	17	18	↑ 1
프랑스	18	19	↑ 1
중국	19	13	↓ 6
호주	20	20	-
아이슬란드	21	23	↑ 2
한국	22	22	-
오스트리아	23	15	↓ 8
체코	24	26	↑ 2
인도	25	24	↓ 1
포르투갈	26	29	↑ 3
남아프리카	27	25	↓ 2
터키	28	27	↓ 1
폴란드	29	31	↑ 2
멕시코	30	30	-
러시아	31	33	↑ 2
스페인	32	37	↑ 5
루마니아	33	32	↓ 1
슬로바키아	34	28	↓ 6
헝가리	35	34	↓ 1
슬로베니아	36	38	↑ 2
이탈리아	37	35	↓ 2
브라질	38	36	↓ 2
그리스	39	39	-
아르헨티나	40	40	-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5, 2016. 8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호수 : 2016년 제26호

발간물 명 : 2015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37-130 서울시 서초구 마방길 68(양재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조사분석실
Tel. 02 589 5240 Fax. 02 589 2915